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이 실습 간호학생의 의사소통,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송 은 주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직의 특성은 병원에서 진료부, 사무부, 간호부, 대상자와 보호자, 노동 조합 등 다양한 부서와 조직과의 인간관계에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Lee, 2005). 이러한 조직에서 근무하고 아픈 대상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에게 공통적으로 새롭게 요구되는 실무 수행능력으로 지도력과 의사소통 능력, 협력과 조정 같은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의 요소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Um et al., 1998). 또한 사회 경제적 수준의 향상, 의료 기술의 발달, 치료 기간 단축 등은 간호 현장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효과적인 간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다(Kim, Park, & Lee, 2004).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갖춘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 학생 때부터 훈련이 시작되고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 대학생들은 대학 입학 후, 입시 위주의 진학 교육에 익숙해져 있어 타인과 원만한 인간관계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Ju, 2005). 그런데 간호학생들은 일반대학생들과 같은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환경에서 차별화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간호학생들은 교과과정에 따라 2학년 혹은 3학년부턴 병원 현장에서 실습을 하게 되며 이때부터 동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나아가 다양한 연령의 대상자, 간호사, 의사들과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러나, 임상실습에 나간 간호학

생들은 부족한 간호지식과 기술 부족 등으로 인해 간호 제공에 대한 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도 경험하게 된다(Ko & Kim, 1994). 이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는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동기감과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대상자들이 학생을 거부하거나 신뢰감을 저하시키게 되는 원인이 된다(Han & Cho, 1999). Speck(1990)은 저학년 간호학생들의 실습에 대한 심리적 준비를 간과하면 효과적인 학습활동과 간호활동 수행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현재의 간호학생들에 대한 임상 실습에 대한 준비 교육은 기본간호학 실습 위주이며 모형 위주의 단편적인 간호 기술을 반복, 훈련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Yoo, Yoo, Park, & Son, 2002) 인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훈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임상 실습 현장에서 치료적 의사소통과 실습과의 관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Pai & Ahn, 1993) 간호기술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에 대한 훈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각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나, 1학년이나 2학년 때 교과과정에서 의사소통 이론 수업만을 제공받은 후 실습을 나가게 된다. 2, 3학년 임상실습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실습 만족도는 낮으며 대인관계에서의 경험 부족, 낯선 환경 등에 의한 자신감 부족 등(Pai & Ahn, 1993)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교육을 통한 저학년 간호 학생들의 심리적 준비가 필요하며(Suk, Kil, & Park, 2002), Kim 등(2004)은 이론적 지식만을 제공하는 의사소통 수업에서 벗어나 간호학생들이 의사소통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배울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의 교과과정 개편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의사소통

주요어 : 의사소통, 대인관계

1) 전북과학대학 전임강사(교신저자 E-mail: hatenr@nate.com)

투고일: 2006년 10월 23일 심사완료일: 2006년 11월 30일

기술은 선천적으로 터득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연습을 통해 얻어지는 능력이다(Lee, 2005). 의사소통 훈련을 통하여 간호학생들은 자신을 최대한 치료적 도구로 이용하여 대상자와 치료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대상자와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효과적인 간호수행을 할 수 있다. 임상 실습 현장에서의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사소통, 대인관계 기술은 심리적 안정을 줄 것이다. 이처럼 간호학생들의 임상 실습에 대비하여 대상자와 인간관계를 맺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치료적 의사소통 방법을 이해하고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들의 임상 실습 전의 긴장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간호학생들의 치료적 의사소통 기술과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집단 활동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는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학생과 강의방법으로 이루어진 의사소통 과목만 이수한 간호학생들이 임상 실습 현장에서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또한 간호학생들이 임상 실습에서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를 얻고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소통 수업과 집단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되었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 실습 전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효과를 비교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강의식 의사소통 과목만 수강한 대조군보다 의사소통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강의식 의사소통 과목만 수강한 대조군보다 대인관계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실습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훈련 프

그램이 의사소통,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설계에 의한 유사실험 연구이다. 연구의 설계 모형은 <Figure 1>과 같다.

Group	Pre-test	Treatment	Post-test
Experimental group	E1	X	E2
Control group	C1		C2

E: Experimental group

C: Control group

X: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Figure 1> Research design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J도에 위치한 일 대학 간호과에서 실험군 2학년 1학기 23명, 대조군 2학년 1학기 22명으로 총 45명이 참여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선정은 세반으로 분반되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반별로 구분한 후, 반별로 실습 기간의 차이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확산을 통제하였고, 실험군 실습지는 정신과 병동, 대조군 실습지는 임상 실습 병동으로 구분을 하였다. 이는 이들 병동이 실습 병원이 다른 곳이어서 실험의 확산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6년 3월에서 2006년 6월까지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연구 목적과 자료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2006년 3월 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군, 대조군에게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고, 6월에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도구

●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은 Choi(2004)의 의사소통 기술 집단 상담 프로그램과 Ju(2005)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Kim 등(2004)이 간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개발하였으며, 6주간의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은 2학년 1학기에 주 1회 120분씩 실시하였다. 1, 2주는 참여자들의 임상 실습 전에 이루어졌으며 3주부터는 임상 실습에 참여하면서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3~4명으로 집단을 나누어 집단 활동형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1학년 2학기에 13주간 [의사소통과 간호](Lee, 2005)를 통하여 이론식 강의를 받은 경험이 있다.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의 목표는 첫째, 자신에 대해 알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치료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세 번째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 시킨다로 하였다.

본 훈련은 전체 6회기로 각 회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1회에서는 참여자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후 자기소개를 하도록 한 후 Johari's window 를 실시하여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 대해 피드백을 실시하였다. 2회에서는 자신의 의사소통 문제점을 찾기 위해 단방향 의사소통, 쌍방향 의사소통 훈련을 실시한 후, 언어적 의사소통, 비언어적 의사소통 훈련을 통해 적절한 해석을 하도록 하였다. 3회에서는 병원 현장에서 실제 경험한 의사소통 사례들을 역할극을 통하여 발표하였고, 발표 사례를 참여자들이 치료적 의사소통으로 전환 한 후 역할극을 다시 하도록 하였다. 4회에서는 실습 시 겪었던 갈등 사례를 역할극을 통해 발표하도록 하였고, 갈등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치료적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는 연습을 하였다. 5회 영화 '패치 아담스' 감상 후 내용에 삽입된 '공감'과 '치료적 의사소통'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 마지막 6회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된 자신의 의사소통 기술과 대인관계 능력을 인식하도록 하였고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 의사소통 능력 척도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Navran(1967)이 제작한 Primary Communication skill을 Choi(2004)가 학생을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이며 자가 보고형 설문지이다. 문항들은 언어적 의사소통 척도 20문항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하위 문항은 경청 기술, 자기노출, 자기표현 능력, 공감 능력, 관계 형성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5이었다.

● 대인관계 척도

대인관계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Guerney와 Schlein(1977)이 개발한 Relationship Scale을 Moon(1980)이 변안하여 Ju (2005)가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이며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원만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87이었다.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의사소통, 대인관계의 동질성 검증을 위하여 χ^2 과 t-test로 검정하였다.
-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처치 후 결과 변인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동질성 검정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총 45명의 성별은 실험군 남학생 2명, 여학생 21명, 대조군 남학생 2명, 여학생 20명으로 두 그룹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183, p=.671$). 연령은 실험군 21.87세(± 1.69), 대조군 21.91세(± 2.00)로 유의한

<Table 1> The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Session	Contents
1	Introduction, presentation after Johari's window is practiced
2	One-way communication, two-way communication training, a training understanding verbal- nonverbal communication
3	Making a role play with a practical case through communicating with patients and then transforming it into therapeutic communication
4	Making a role play against the conflict situation and then transforming it into therapeutic communication
5	After watching 'Patch Adam's' video, a discussion about empathy, therapeutic communication
6	Final evaluation and feedback

<Table 2> Homogeneity test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General characteristics		Experimental group n(%) / Mean \pm SD	Control group n(%) / Mean \pm SD	χ^2 or t	df	p
Gender	Male	2 (8.7)	2 (9.1)	.183	43	.671
	Female	21 (91.3)	20 (90.9)			
Age		21.87 \pm 1.69	21.91 \pm 2.00	.008	43	.928
Interpersonal communication		75.48 \pm 6.47	74.00 \pm 9.23	.749	43	.392
Interpersonal relations		76.87 \pm 4.12	75.41 \pm 2.32	3.645	43	.063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008, p=.928$).

의사소통 능력 정도는 실험군 75.48 ± 6.47 점, 대조군 74.00 ± 9.23 점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749, p=.392$), 대인관계 능력 정도는 실험군 75.87 ± 6.47 점, 75.41 ± 2.32 점으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3.645, p=.063$).

두 그룹간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 첫 번째 가설인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강의식 의사소통 과목만 수강한 대조군보다 의사소통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의 가설을 검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실험군의 프로그램 의사소통 사전 점수는 75.48 ± 6.47 점이었으며 사후 점수는 82.65 ± 7.94 점으로 나타났고, 대조군의 사전 점수는 74.00 ± 9.23 점, 사후 점수는 73.09 ± 4.57 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t=2.930, p=.005$) 이 가설은 지지되었다. 실험군의 하위 영역

변화는 경청($t=2.459, p=.018$), 자기 노출($t=2.231, p=.031$), 공감 영역($t=3.088, p=.00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두 번째 가설인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강의식 의사소통 과목만 수강한 대조군보다 대인관계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실험군의 프로그램 사전 점수는 76.87 ± 4.12 점이었고 사후 점수는 80.70 ± 5.64 점으로 나타났고, 대조군의 사전 점수는 75.41 ± 2.32 점, 사후 점수는 75.45 ± 6.86 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t=2.902, p=.006$) 이 가설은 지지되었다. 실험군의 하위 영역 변화는 신뢰감($t=2.526, p=.01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실습 간호학생들에게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 훈련을 통해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능력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Table 3> Effect of the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on the scores for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 between the two groups. (N=45)

Variables	Group	Pre		Post		t	p
		Mean	SD	Mean	S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Experimental	75.48	6.47	82.65	7.94	2.930	.005
	Control	74.00	9.23	73.09	4.57		
Listening	Experimental	9.34	1.30	10.00	1.12	2.459	.018
	Control	9.50	1.37	8.95	.722		
Self-disclosure	Experimental	20.78	2.39	23.22	3.00	2.231	.031
	Control	20.45	2.69	20.68	1.84		
Self-expression	Experimental	17.87	2.01	19.13	2.30	1.379	.175
	Control	17.56	2.50	17.64	1.50		
Empathy	Experimental	18.65	2.04	20.26	2.45	3.088	.004
	Control	18.36	2.42	17.18	1.53		
Relationship	Experimental	9.03	1.29	10.04	1.33	1.794	.080
	Control	8.86	1.46	8.64	.95		
Interpersonal relations	Experimental	76.87	4.12	80.70	5.64	2.902	.006
	Control	75.41	2.32	75.45	6.86		
Safety	Experimental	12.35	1.61	12.91	1.95	.922	.362
	Control	11.91	1.11	11.90	1.31		
Communication	Experimental	15.13	1.69	16.00	1.81	1.166	.250
	Control	15.32	1.21	15.46	1.60		
Reliability	Experimental	8.91	1.20	10.17	1.45	2.526	.015
	Control	8.77	.87	8.91	.97		
Intimacy	Experimental	9.39	1.03	9.83	1.59	.891	.378
	Control	9.83	1.59	8.77	1.02		
Sensitivity	Experimental	6.39	.84	6.87	1.06	1.685	.099
	Control	5.91	.75	5.77	.69		
Openness	Experimental	12.78	1.86	12.87	1.79	1.795	.080
	Control	12.64	1.09	11.68	.84		
Understanding	Experimental	11.91	1.12	12.83	1.80	.814	.429
	Control	12.05	1.29	12.14	4.42		

본 연구의 결과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받는 것이 기존의 의사소통 이론 수업을 받는 것보다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훈련에 참여한 실험군의 의사소통 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Ju(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다른 도구를 사용한 Kang(1996)의 연구에서 성인 여성들에게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도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대졸 여성들이 고졸 여성들보다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간호 대학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Kim 등(2004)의 연구에서도 집단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음이 보고되었다. Kim 등(2004)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학생들에게 집단 프로그램을 통합한 의사소통 교과목 개발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 프로그램 구성이 실제 사례 위주의 역할극과 즉시 치료적 의사소통으로 전환할 수 있는 훈련에 중점을 두었고, 병원에서 치료적 의사소통을 담은 비디오 감상 후의 토론 등이 이루어져 임상 실습 시 바로 치료적 의사소통을 적용할 수 있어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사소통 하위 영역에서 실험군은 경청, 자기 노출, 공감 능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Ju(2005)의 연구에서 의사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이 경청의 기술에 변화가 있었다는 보고와 일치하며, Kim 등(2004)의 연구에서 의사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이 표현의 정확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것과 일치된다. 경청과 공감 능력에서 Kang(1996)의 연구에서도 의사소통 프로그램 참여 집단이 내적 생각과 감정 등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변화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자기노출의 유의한 차이도 Kim(1997)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는 이 프로그램 내용이 역할극이 많아 연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기를 노출시키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Ju(2005), Choi(2004)의 연구에서 의사소통 영역 중 공감 능력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것과 일치한다. 따라서 의사소통 프로그램은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에도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5회 진행 시 ‘패치 아담스’ 영화 내용에서 의료인들의 의사소통을 보면서 실제 병원 상황도 대상자와 의료진간의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대해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다. 공감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Lee, 2005). 아픈 대상자를 간호하는 간호학생들에게 공감 능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공감 훈련은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이 능력

의 향상을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Ju(2005), Jeon(1997)이 의사소통 훈련을 받은 집단이 대인관계 능력의 향상을 보여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2000), No(2002)의 결과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Chung(2003)의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등(2004)의 연구에서도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간호학생들의 임상 실습 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위 영역에서 신뢰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역할극, one-way, two-way 의사소통 훈련, verbal-nonverbal 훈련을 통해 상대방의 모든 언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훈련은 서로간의 신뢰성이 있어야 증진되는 것이어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로그램 진행 기간 동안 실습지에서 대상자와 껴야 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운 점을 직접 들을 수 있었으며 이론적으로 배웠던 치료적 의사소통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참석자가 23명이어서 3-4명으로 조를 나누어 120분간 진행하였는데 시간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집단 활동이나 집단치료 프로그램과 같이 10여명의 구성원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입증되었다 해도 실제 간호대학에서 10명의 인원만 프로그램에 적용한다는 것은 인적 자원과 공간적 지원 등 많은 비용의 투자가 있어야 하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Kim et al., 2004). 따라서 갑작스런 투자나 변화보다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의사소통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이론 수업과 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가능하면 실습에 나가기 이전 학년으로 의사소통 과목을 편성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10명이 넘는 학생 수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집단 프로그램 형식으로 구성하여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의사소통과 사정기술을 적용하고 문제해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가치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하였다(Kwon, 2002). 이 프로그램은 간호학생들이 임상 실습에서 간호 수행 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대상자 사정 및 문제해결 능력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대인관계 능력을 증진 시켜 임상 실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집단 훈련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추후에는 강의식 수업과 훈련 프로그램을 병행한 후 이에 대한 효과 검증과 긴장감과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변수를 추가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상 실습에 임하는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05년 9월에서 2006년 6월까지였으며, 연구 대상자는 실습 병원이 다른 실험군 23명, 대조군 22명이었으며, 연구 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설계에 의한 유사 실험 연구이다.

연구방법은 의사소통 이론 과목만 수강한 대조군과,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을 6주간 실시한 실험군에게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효과를 각 군별로 전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동질성 검증은 χ^2 , t-test를 사용하였고, 가설 검증은 t-test를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 1 가설인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강의식 의사소통 과목만 수강한 대조군보다 의사소통 점수가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제 2 가설인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강의식 의사소통 과목만 수강한 대조군보다 대인관계 점수가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간호학생들이 임상 실습에서 간호 수행 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대상자 사정 및 문제해결 능력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대인관계 능력을 증진 시켜 임상 실습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집단 훈련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또한 의사소통 이론 과목의 강의식 수업에도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실적으로 이 프로그램만 강의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의사소통 수업 시간에 이론과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한 후 효과 측정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References

Choi, E. Y. (2004). *The effects of a communication skills group on high school students' self-concept and communication 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Busan.

Chung, H. K. (2003). *The Effects of a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on enhancing high school students' human relationship and socia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won.

Guerny, B. G., Schlein, S. (1977). Relationship enhancement. Skill-training programs for therapy, problem prevention, and enrichment. *Train Dev J*, 39(9), 84-85.

Han, K. S., & Cho, J. Y. (1999).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J Korean Acad Nurs*, 29(2), 293-303.

Jeon, J. Y. (1997). *The effect of the helping skill trainig program on communication skill, interpersonal relationship social anxiety, and perceptual orien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Ju, J. S. (2005). *The effects of the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communication and human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ang, K. J. (1996). *The effect of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Kim, M. Y. (2000). *The effect of communication training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Kim, S. A., Park, J. H., & Lee, H. H. (2004).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comprehensive communication course for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34(3), 412-420.

Kim, S. H. (1997). *The effects of the communication training on the relationship for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B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 S. H., & Kim, K. M. (1994). An initial clinical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Korea Nurse*, 33(2), 59-72.

Kwon, I. S. (2002). An analysis of research on clinical nursing education. *J of Korean Acad Nurs*, 32(5), 706-715.

Lee, K. J. (2005). *The Communication and Nursing*. Seoul: Shinkwang pub.

Moon, S. M. (1980). A study on the effect of human relations training of university students. *J Gyeongsang Nat Univ*, 19, 195-204.

Navran, L. (1967). Communication and adjustment in marriage. *Fam Process*, 6, 173-184.

No, Y. H. (2002). *The Effects of satir group counseling on perception of human relation and classroom cohesiveness for middle-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won.

Pai, H. J., & Ahn, H. L. (1993).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evaluation scores. *J Korean Acad Nurs*, 23(1), 5-15.

Speck, B. J. (1990). The effect of guided imagery upon first semester nursing students performing their first injections. *J Nurs Edu*, 29(8), 346-350.

Suk, M. H., Kil, S. Y., & Park, H. J. (2002). The effects of guide imagery on nursing syudents performing intramuscular injections. *J Korean Acad Nurs*, 32(6), 784-791.

Um, Y. R., Suh, Y. O., Song, R. Y., June, K. J., Yoo, K. H., & Cho, N. O. (1998). The development of nursing education model and the instrument for improving clinical competence. *J Korean Acad Soc Nurs Educ*, 4(2), 220-235.

Yoo, M. S., Yoo, I. Y., Park, Y. O., & Son, Y. J. (2002).
Comparison of student's clinical competency in different

instructional methods for fundamental of nursing practicum.
J Korean Acad Nurs, 32(3), 327-335.

The Effects of a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on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 Student Nurses in Clinical Practice

Song, Eun Ju¹⁾

1) Full 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Jeonbuk Science College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the effects of a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on communication skill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Method:** A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was provided to student nurses who were selected as participants during a course of clinical practice. Of the students 23 were assigned to experimental group and 22 to the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part of the study was done with the experimental group during 6 week program course. The control group received only a communication theory course. **Results:**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 scores on the post-test in the experimental group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This program allowed nursing students to advance their communication skills during their clinical trials. These are skills which are necessary for nursing practice. The study demonstrated that a group training program that can provide students with practical support by improving the personal relationship.

Key words : Communication, Interpersonal relation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ong Eun Ju
Department of Nursing, Jeonbuk Science College
9-28, Sigi-Dong, Jeongup-city, Jeonbuk 580-712, Korea
Tel: 82 -63-530-9299 Fax: 82-63-532-3768 E-mail: hatenr@nate.com